

안규백 “핵추진잠수함 도입, 한미동맹 중요한 이정표 될 것”

(국방부 장관)

안 장관, 美 의회 주요인사 회동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지지 요청
“나무호, 군사대응 검토 단계 아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 선사 소유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대응책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11~12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로저 위커미 상원 군사위원장, 잭리드 상원 군사위 간사, 릭 스타 상원군사위 해양력소위원장을 접견하고 동맹 현안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장관은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내 연합방위태세 유지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 의회 주요인사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안 장관은 12일 오전 헝 카오 미합중국 해군성 장관대행도 접견했다. 국방부 산하 해군성은 해군과 해병대를 관할한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가 함정건조에 있

어 우수한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선 협력에 있어 미국의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한미 간 공동 안보의 증진에 기여하고, 한미동맹 격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해군성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헤그세스 장관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며 “국방부는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하는 방안 등에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요구해왔는데, 안 장관이 전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이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지원이나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는 않았고, 단계적 지원 방침은 우리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얘기된 것이라고 한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나 나무호 관련해서 대화한 것은 맞다. 대화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 요청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일반 상식선에서 얘기를 했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선상에서 여러 가지 이란에 대한 여러 여건이 있지 않느냐”며 “그 단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장비 파견, 정보 공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군사적 여력 지원까지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를 준수해서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코스닥 유망기업, 혁신 생태계 함께 지켜야”

벤처단체 공동 입장문

코스닥 시총 상위기업 잔류 호소
규제 차등화 등 제도개선 계획 밝혀

벤처 관련 단체들이 유망 기업들에게 코스닥 시장을 떠나지 말라고 호소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스닥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코스닥 유망기업이 시장에 잔류해 혁신 생태계와 시장 신뢰를 함께 지켜나갈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벤처 협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코스닥 시총액 3위의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테오젠은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단체 3곳은 “코스닥은 단순한 자금조달 시장이 아니라 혁신·벤처기업이 도약하는 플랫폼”이라며 “선도기업이 시장에 남아 성장할 때 투자자의 신뢰가 유지되고 후속 기업의 도전과 모험자본 유입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했다. 반대로 유망기업이 이탈할 경우 시장의 투자 매력도와 신뢰 기반이 약화되고 혁신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관기관과 코스닥 유망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장기자금 유입 기반 확충, 규제 차등화 등을 예시로 들었다.

단체들은 “코스닥 시장의 미래는 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자산”이라며 “유망기업이 긍지를 가지고 머무는 시장, 혁신·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코스닥 기업과 투자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코스닥협회는 이와 별도로 알테오젠에게 코스피 이전상장을 재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이 코스피 시장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최근 급등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코스닥협회는 공문에서 “코스닥 시장은 알테오젠과 같은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했고, 알테오젠의 존재는 투자자 신뢰 유지와 수많은 후속 기술기업의 코스닥 상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코스닥 대표기업의 코스피 이전은 시장 전반의 투자 매력도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린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한때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였던 셀트리온도 2018년 당시 코스피로 이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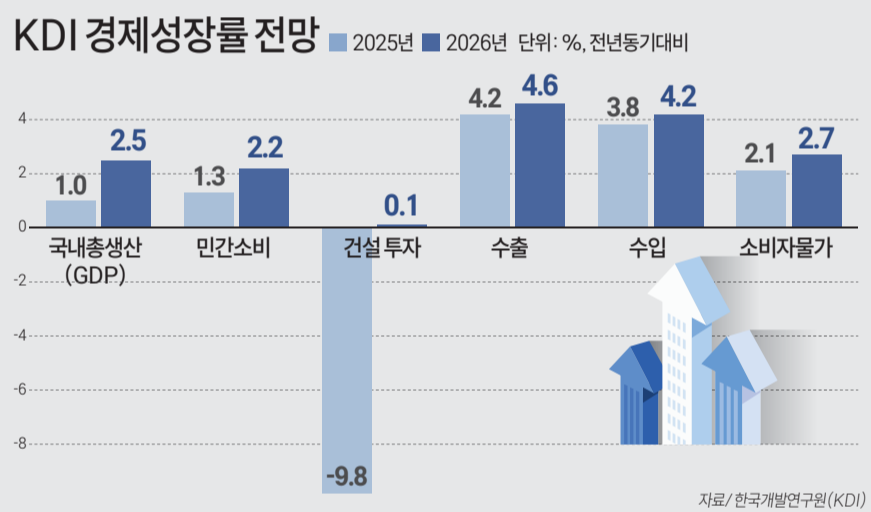
다만 알테오젠은 당초 계획대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알테오젠은 지난해 8월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공개한 뒤 같은해 9월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며 채비를 마쳤다. 지난해 연말 임시주주총회선 이전 상장 안건까지 통과시켰다.

회사는 올해 내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



KDI,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2.5% 제시

반도체 수출 호조·내수개선 흐름 반영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6%포인트(p) 올렸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비롯해 내수 개선 흐름을 반영한 상향조정으로 해석된다.

KDI는 13일 발표한 ‘2026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예측치인 1.9%와 비교해 큰 폭의 상향이다.

보고서는 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올해 2.5%로 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요 지표가 일제히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소비(1.8→2.6%)와 설비투자(2.0→3.3%), 건설투자(-9.8→0.1%), 수출(4.2→4.6%) 등이다.

중동 사태와 미국발 관세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경기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내수의 경우, 소득 여건이 지난해보다 개선되면서 나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반해, 2027년 성장률은 1.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건설투자(1.1%) 여건은 올해보다 개선되는 반면, 소비(1.8%), 수출(2.2%), 설비투자(2.4%) 등은 올해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26~2027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경기 확

장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의 정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관련 언론설명회를 갖고 “올해 2.5%, 내년 1.7%의 성장률은 우리가 추정한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는 “사이클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적어도 2026년도까지는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2027년도에도 수요가 있지만 지금보다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2.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발 물가압력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상승률도 지난해 1.9%에서 올해 2.5%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국제유가 안정화를 예상했다. 이에 물가상승률이 2.2%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반도체 공급 능력이 빠르게 확충되는 경우 경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중동 전쟁이 격화하거나 장기화하는 경우 원자재 수급 차질과 생산 비용 상승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



물가지표 상승세... 인상 사이클 견해도

>> 1면 ‘물가 대응이 먼저...’서 계속

물가지표도 한은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 2.2%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특히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가 상승은 석유류 가격에 그치지 않고 수입물가와 생산비용을 거쳐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변질 수 있

다. 공급 충격은 성장을 낮추고 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만큼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대응이 까다로운 변수다.

반면 성장 하방 우려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일부 완화됐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0% 증가한 85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621억1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37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성장이 빠르게 꺾이는 국면이라면 한은이 물가 부담에도 경기 방어를 고려할

여지가 커진다. 하지만 반도체가 성장을 때리고, 물가와 환율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5월 금통위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 점도표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금리를 올릴지 여부보다 금통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얼마나 높게 보는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외부 충격과 경제 여건에 따라 인하보다는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견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